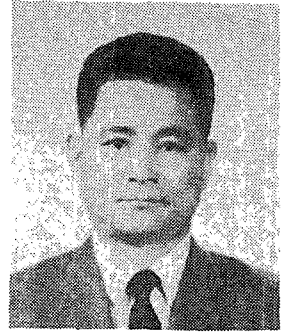




人口增加와 環境問題



崔仁鉉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研究委員)

가. 成長率의 調和

人類의 生存에 關한 危機意識을 警告한 바 있는 “成長의 限界”라는 로-마. 크라브의 世界的인 碩學들에 의한 研究가 發表된지도 10年 이란 세월이 지났다. 이 冊字는, 當時의 人類의 將來를 豫側해 본 代表的인 冊字로서, 많은 發行高를 자랑했던 베스트·셀러의 人氣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 研究는 人口, 資源, Energy, 環境等 人間의 生存을 위한 主要變數들을 多樣한 分析模型에 適用하여 將來를 豫側해 본 結果로서 各分野의 學界에서도 많은 關心과 論議가 있기도 하였다.

主要 內容을 한마디로 要約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0年의 世界人口는 70億에 接近할 것이라고 推定하였다. 그리고 70億 人口를 擔當할 수 있는 食糧供給을 위한 農業適地는 32億 헥타르(Hectare)가 必要하다고 算出되었으며, 이와같은 農地需要는 現在 水準의 約2倍에 해당되며, 農地開發을 위한 巨額의 資本投資와 더불어 生産效率을 維持하기 위한 倍加의 努力이 投入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特히, 開發途上國에서는 食糧供給의 伸長率이 人口增加에 比하여 約 50% 水準에 있음을 지적하고, 食糧 위기의 심각한 時期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이러한 앞날에 닥쳐 올지도 모르는 狀況을 甘안할 때, 人口增加는 當面한 人類의 環境問題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問題를 야기시키는 要因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앞으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經濟成長이 加速化 되어야 하고, 經濟成長의 加速化는 環境汚染을 促進하게 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앞날의 두려움에 對備하기 위하여 1970 年代 초반부터 ZPG(Zero Population Growth), 말하자면 人口增加를 zero 成長으로 멈추게 하여야 한다는 스로진에 抬頭되었으며, 1980 年代에 大部分의 先進國에서는 人口의 zero 成長 傾向이 實現 되었거나, 實現 段階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開途國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難題의 하나로서 크게 成果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國際關係의 複雜性, 理念的인 從屬理論(Dependency Theory)의 影響等 少數의 中進國들을 除外하고는 單期間에 ZPG를 期待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實情이다.

다음으로는 生物界의 突然變異가 發生하지 않도록 環境이 保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學者들은 이를 ZMR(Zero Mutation Rate)이라고 하며, 突然變異率이 zero에서 維持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突然變異는 生物, 特히 人間의 進化에 많은 影響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人間의 遺傳子 集團속에는 여러가지의 變異性이 內在하고 있으며, 身長, 두뇌의 能力, 體力, 藝能, 創造의 能力, 感情의인 性質等 多樣한 遺傳子 間의 組合이 自然的 또는 人爲的으로 變化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進化가 일어

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理論的으로는 放射線 또는 여러가지의 變異原의 物質 等 人工의인 原因에 의한 突然變異의 防止를 위한 研究가 여러가지의 分野에서 實驗되고 있다고 한다.

人類가 滿足스러운 生活를 維持해 나가기 위해서는 經濟成長을 中止시킬 수는 없다.

Energy의 生産, 生活消費物資의 生産 等 産業活動이 擴大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原子力, 石油, 石炭 및 各種 化學工業을 必要로 하게 되므로, 放射能 또는 變異原의 物質은 相對的인 增加를 不可避하게 된다. 結論的으로 이러한 危險要因의 除去는 經濟成長을 둔화시키는 方法 以外는 없다고 한다.

環境汚染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NMS (No More Speed), 即 앞날의 後孫들의 福祉社會를 위하여, 環境問題를 심중히 감안한 理想的인 經濟成長이 檢討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現實은 아직도 經濟成長과 社會開發의 均衡적 調和는 時日을 要하는 것이지만, 早速한 將來에 先進國 隊列의 一員으로서, 均衡있는 發展을 期하고, 經濟成長을 둔화시킬 수 있는 時期가 오기를 期待해 본다.

나. 人口의 再分布

1960年代 우리 나라의 人口問題는 人口의 量的 抑制에 置重되었으나,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부터 多様な 方面으로 人口問題가 擴散되고 있다.

예를 든다면, 國民保健의 改善에 따른 壽命의 延長, 人口構造의 變動에 따른 人口老年化의 暗示, 國民福祉政策의 再檢討등 모두가 直接 혹은 間接的으로 人口問題에 연유 되고 있다. 量的抑制에만 置重되어 온 政策方向은 質的인 側面과 調和를 이룰 수 있는 方向으로 再定立이 되어야 하는 時期에 왔다고 하겠다.

人口問題를 認識하는 國民의 意識水準이 크게 向上되었고, 政府의 地域開發에 對한 政策的인 支援도 數次의 5次計劃을 通하여 相當히 進展을 보았다.

그러나, 都市人口, 특히 首都圈의 人口增加는 좀처럼 鈍化되는 傾向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서울市의 경우, 人口移動率이 每5年마다 50%씩 減少하는 假定을 基礎로 하더라도 2,000年의 서울 人口는 1,378萬에 達하게 된다. 또한 서울市를 向한 人口移動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면 1,150萬에 達할 것으로 推算된다.

유엔의 推定에 의하면, 2,000년에는 開途國의 都市人口는 14億에 육박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1975年의 都市人口는 約10億, 先進國과 開途國이 各各 5億씩 分布되어 있었으나, 2,000년에는 先進國의 7.5億보다 6億을 증가할 것으로 推計됨으로서, 開途國의 都市人口는 環境衛生 및 公共 Service에 있어서 크게 壓迫을 받게될 것으로 念慮되고 있다.

1975年, 世界保健機構(WHO)의 資料에 의하면 開途國의 都市人口中 25%가 安全한 飲料水의 供給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25%는 排泄物處理家庭施設을 保有하지 않는 것으로 指摘하고 있다.

都市環境의 두가지 基本條件인 飲料水와 下水處理에 關한 指標는 漸次的으로 改善이 될 것으로 豫想되지만, 都市住民의 健康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都市地域의 環境問題는 低所得層만이 아닌 中產層 以上에 의한 車輛數의 增加에 따른 大氣汚染은 좀처럼 管理하기 어려운 問題이기도 하다.

國際勞動機構(ILO)의 研究에 의하면 “ 都市人口의 增加는 飽和點이 假想되며, 飽和點을 지나게 되면, 都市經濟가 둔화되어 移住傾向이 減少될 것이다”라고 主張되고 있다. 아마도 大量消費로 부터 節約으로 移行되는 不可避한 變化는 앞날의 人口分布와 環境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도 豫想된다.

우리 나라의 都市化는 2,000년에는 約80%에 가까워질 것으로 推定되지만 人口의 再分布 政策은 集中抑制 보다 地方으로의 定着分散, 또는 과감한 地方分權等으로 農村都市가 開發될 수 있도록 分散對策이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